

내장산 설경에 겨울 빛이 내린다

'단풍 겨울 빛 축제' 27일 개막
단풍터널 LED 경관조명 설치
눈꽃정원·포도 존 등 조성
관광객 '추억의 시간' 선물



정읍시가 27일부터 다음 달까지 단풍터널 일원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겨울 이벤트 '내장산 단풍 겨울 빛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을 단풍 내장산만큼이나 멋진 겨울 내장산에 겨울 빛이 내린다.

정읍시가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단풍터널 일원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겨울 이벤트 '내장산 단풍 겨울 빛 축제'를 개최한다.

설경이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터널 일원(약 500m)에 은은하고 따스로운 LED 경관조명으로 단풍 빛 터널과 눈꽃정원, 별빛정원, 다양한 포도 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은은한 클래식 선율을 연주해 관광객에게 근사한 추억의 시간을 선물한다.

특히 개막식인 27일 오후 4시부터는 축하공연, 점등 퍼포먼스, 가수 추가열 미니 콘서트, 단풍빛 터널 걷기 등 행사가 준비돼 있다.

다음 날인 28일부터 행사 마지막 날 오

후 4시부터 8시까지 빛 터널 경관, 눈꽃정원, 별빛정원을 상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중 정읍시청 SNS 가입자는 현장에서 무료로 사진 인화 서비스 받을 수 있다.

SNS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추천을 통해 정읍사랑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을철 단풍 시기에 만 편중된 기존의 관광 틀을 벗고 겨울 시

즌 가족과 연인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내장산 단풍 겨울 빛 축제를 개최했다"며 "새로운 겨울 축제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본부장

순창군,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 박차

전신주·통신선 등 지중화 공사 내년 2월 마무리

순창군 중심 상권인 중앙로(사진)가 문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읍내 중앙로 양방향 구간과 교육청 일대 등 1.5km 내 전신주, 통신선, 전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중화 공사가 내년 2월께 마무리되고 조명이 교체되면 일대가 한층 맑아지고 밝아진다.

중앙로 양쪽 화단에는 조명을 설치해

동물 조형물을 비추고 거리 곳곳에 사진 촬영구역도 만든다.

순창군은 한 달에 하루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거리 문화공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로 도로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다.

군은 중앙로를 문화거리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선정기준은 461만 3536원에서 474만 9174원으로 2.94% 인상된다.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은 30% 공제돼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된다.

또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

된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해경, 새조개 불법조업·유통 사범 특별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군산 앞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사기동정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서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새조개 불법 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

하고,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계획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형망 조업 행위 ▲변형 형망과 펌프망 어선의 허가 외 불법 어업 행위 ▲비어업인의 다이버 등 불법 조업 행위 ▲불법 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행위 등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목포해경, 휴식쉼터 '해명뜨락' 호응

원로작가 23명 작품 전시 방문객·직원 소통공간 활용

목포해양경찰서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 공간이 직원과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청내 2층 의무경찰 내부만 옆 공간에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휴식쉼터를 조성했다.<사진> 직원 쉼터 명칭은 '해명뜨락'이다.

해양경찰의 '해(海)와 작풍기증자 명기환 시인의 성명 첫 글자 '명(明), 한적한 공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뜨락'으로 지었다.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쉼터에는 해양경찰 홍보대사 명기환 시인의 미술작품 23점과 목포해경 소속 3015함 경비함정 승선체험 현장에서 쓴 7편의 전시됐다.

해명뜨락은 기존 휴게실을 리모델링해 직원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로

써 총면적은 89㎡다.

전남 문화예술 원로작가의 작품 23점을 전시하고 커피머신, 테이블 등을 갖췄다.

개관식은 지난 20일 전 직원과 국회의원 박지원, 홍보대사 명기환 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명기환 시인은 "해양경찰은 장기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다"면서 "지친 몸을 잠시 이곳 쉼터에서 동료,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정담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채광철 목포해경 서장은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뜻깊은 문화쉼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전남도 '도로정비 종합평가'

함평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이 전라남도 주관 '2019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지난 2017~18년 최우수기관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2회(봄, 가을)씩 도로정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포장도 보수,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배수시설 정비 등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각 시·군별 지방도(군도 포함)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노면 평탄성 확보 ▲배수시설 기능 유지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제설차량 및 장비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중장비를 이용한 측구·포트를 토사정비와 노면 청소차(16t)를 활용해 도로본연의 기능을 꾸준히 유지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업이 기반인 지역 특성 상 노면 정비와 도색, 정결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도로를 정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현재 지방도 6개 노선 69.7km, 군도 16개 노선 111.96km,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182.89km 등 총 234개 노선, 364.55km를 관리하고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